

## 延辺 朝鮮族의 衣生活 實態에 關한 研究<sup>+</sup>

- 延吉市 女大生과 主婦를 中心으로 -

曹圭和\* · 李禧承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教授\*,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衣類織物學科 碩士

## A Study on the State of Clothing Habits of Yanbian Chinese-Koreans<sup>+</sup>

- Focusing on the Girl College Students and the Housewives in the Yangil City -

Kyu Hwa Cho\* and Hee Seung Le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MA.,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n this study is to grasp the clothing habits and problems of the Chinese-Koreans in Yanbian, China through the fact-finding survey about the clothing habits for the Chinese-Koreans in Yanbian, China who have frequent exchanges with the North Korea and have relatively similar home culture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lso it is to make th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ir qualities of life. As for the method of study, it centered on the investigation by the questionnaire on the spot and it referred to the data like domestic and abroad literature, field observation, interview and internet, etc. as a reference. Also it centered on the girl college students and the housewives in Yangil City as an object of research. Accordingl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Yanbian is the largest Chinese-Koreans group of people in the China. The economic environment in Yanbian is in the middle of the whole China. With the open-economy of China and the contact with the foreign culture, especially with Korea, the 1960s and 1990s coexist in. The Chinese-Koreans in Yangil spend about 1,425 CNY as clothing expenses averages a year, and the estimated value of holding amount of clothing is about 27 suits. They recognize the clothing made in Korea as high-quality and high-price of high-quality articles. They have high interest in the Korean fashion as the younger generation. They prefer to modern, active, refined and mature atmosphere in the clothing atmosphere, but they still do not reach to the level yet in actual. They generally have strong tendency with the preference of black color or dark color because they have small holding amount. The field materials of fiber did not become high-quality articles because they hold in the level of 1960s in Korea. So, the color level of Chinese-Koreans in Yanbian is still low.

---

+ 본 연구는 2000년도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연구비에 의해서 이루어졌음.

## I. 서론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큰 과제이다. 최근 들어 남북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변화와 함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 2000년 6월 13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루어졌고, 이 후 8월 1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분단 반세기가 넘는 남북한 민족의 실질적인 가정생활 문화의 동질성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대비한 기초조사로서 북한의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한국과의 관계단절과 국제적 패쇄정책으로 인해 북한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과 교류가 잦고, 가정생활 문화가 유사한 중국 연변(延邊) 조선족의 가정생활을 비롯한 의생활 문화의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들 생활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중국 연변 조선족에 대한 선행연구들로는 생활일반을 다룬 '중국 연변의 조선족', 주생활을 다룬 '중국 연변의 조선족 전통농가의 주생활<sup>2)</sup>', 식생활을 다룬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주부들의 식생활 문화에 관한 연구<sup>3)</sup>' 등 생활에 관련한 연구나 '한국과 중국 조선족 여대생의 체형 비교연구<sup>4)</sup>'와 같은 몇몇 연구들이 있지만 이들의 의생활을 취급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조선족의 전반적인 의생활 실태조사로서 그 초석을 다진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주로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 연변 현지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 및 인터뷰 조사, 또한 재(在)서울 연변인의 인터뷰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특정 지역 사회에서의 장기간 현지조사가 특히 외국인에게는 매우 힘든 것이었고, 현지인들의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관계로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고도 분석에 사용하지 못한 건수가 꽤 있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백분율로만 산출하였다.

## II. 중국 연변의 조선족

### 1. 중국 연변지역의 개황

길림성(吉林省) 동부에 위치한 연변(延邊)은 동으로는 러시아 해변강구와 접하고 있고, 남으로는 북한 함경북도, 양강도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연변 토지의 총면적은 42,700 평방 km로서 길림성의 1/4을 차지하고 있다.<sup>5)</sup>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총인구는 약 220만 명 정도이며, 그 중 조선족(朝鮮族)이 85만 4천 명으로서 39.7%를 차지하고, 한족(漢族)이 57.4%를 이루고 있다.<sup>6)</sup> 1952년 9월 3일에 성립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중국에서 조선족의 제일 큰 집거 지구이며 제일 먼저 민족구역 자치를 실시한 지방의 하나이다. 자치주 관할구역 내에는 연길(延吉), 훈춘(珲春), 둔화(敦化), 용정(龍井), 도문(圖門), 화룡(和龍) 6개 시와 안도(安圖), 왕청(汪淸) 2개의 현이 있고, 54개의 진, 51개의 향이 있다. 연변 경내에는 한족(漢族), 조선족(朝鮮族), 만족(滿族), 회족(回族) 등 4개 민족과 기타 16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소수민족 인구는 92만 1천여 명으로서 전 주 총인구의 42.2%를 차지한다. 오랜 기간동안 연변의 여러 민족들은 사이좋게 지내오면서 서로 돕고 단결하여 민족단결의 전통을 형성하였으며 중국의 성과 국무원으로부터 민족단결진부 모범자치주로 인정받았다.<sup>7)</sup>

연변의 경제적 환경은 전 중국의 중간정도이며 중국의 개방화와 더불어 외국문화 특히 한국과의 접촉으로 1960년대와 1990년대가 공존하고 있다. 연변의 가정경제는 가족당 월 평균 총소득이 약 1,142위안(Yuan, 당시 1\$=0.1176위안) 정도이며, 월 평균 생활비가 803위안 정도이다.<sup>8)</sup> 연변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주요한 임업지구이고, 장백산 자연 풍경구 등 충분한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이 주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변의 문화적 환경을 살펴보면, 연변은 중국에서

교육이 발달하고 문화가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 명당 대학·중등 전문학교 이상의 문화정도를 가진 사람이 3040여 명으로서 전국 평균수의 2.1배에 달한다. 또한 민족문화예술과 체육운동 등 기타 사회사업이 비교적 발달하였으며, 산아제한 사업은 중국 전국의 모범자치주로 평가받았다.<sup>9)</sup>

## 2 중국 연변 조선족의 역사

### 1) 연변 조선족의 이주

중국 조선족은 조선반도로부터 이주한 우리 민족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선민(先民)들이 이 곳을 생활의 터전으로 개척한 적이 있었고, 현재의 중국 조선족은 대체로 명말(明末) 청초(淸初)로부터 1940년대 말까지 한반도에서 이주, 정착한 우리 이주민과 그들의 후예들로 구성된 민족집단이다.

조선족의 이주과정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 첫번째 시기는 조선 이주민이 동북에 대거 이주하기 시작해서부터 1910년 한일합방 이전까지이고, 두 번째 시기는 한일합방 이후에서 1945년 광복 전까지이다.

조선족의 대량 이주는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조선 북부지역에는 연속 몇 해 동안 심각한 자연재해가 닥쳐 수많은 조선 재해민들이 살길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중국 동북으로 강을 건너가 척박한 땅에 황무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닦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과 중국 두 나라는 봉금(封禁)정책을 실시하여 이주민들의 정착이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주민들은 압록강, 두만강 연안 지역에 널리 분포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조선족은 더욱 대규모로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이 시기 이주의 특징은 강제 이민정책에 의한 농민이나 파산한 농민, 독립운동가의 이민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소련군과 동북 항일 연합군이 연변에 들어오자 많은 조선족들은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나머지는 그대로 머물렀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을 당시 조선족은 111만여 명이고, 이때 수만

명의 조선족 청년들이 중국 공산당의 민주군단(民主軍團)에 가담하여 인민해방군이 되었다. 당시 연변의 5만여 명의 인민해방군 중 85%는 조선족이었다. 이들 중 많은 인원은 한국전쟁 때 북한을 돕기도 하였다.<sup>10)</sup>

연변에 조선족 자치가 시작된 것은 1952년 9월 3일이다. 이 날 자치구 주석으로 주덕해(朱德海)<sup>11)</sup>를 추대하였다. 조선족 자치주의 탄생은 조선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동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족의 언어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sup>12)</sup>

1979년 중국은 등소평의 '평화공존 5원칙'으로 개체화(個體化) 운동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였다. 그 후 연변 조선족은 국제적십자사의 도움으로 남한의 이산가족을 방문하게 되고, 또 서울에서 개최된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게임을 통해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1992년 중국과 우리나라의 양국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연변에서는 소위 '한국열'이 일기 시작하였다.<sup>13)</sup>

### 2) 연변 조선족의 문화<sup>14)</sup>

연변 조선족의 문화를 단적으로 말한다면 조선족끼리 모여 살기를 즐기고, 교육열이 높고, 가무(歌舞)와 축구를 좋아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자식을 귀중히 여기어 자녀교육을 중요시하는 전통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조선족은 자체의 문화 형성과정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이에 따른 시대적인 사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 전통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그들이 해방 이후 험난한 시절을 겪으면서도 현재까지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잃지 않고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조선족은 언어, 의복과 식습관, 주택의 유형과 기본형태, 거주풍습, 농업 생산방식 등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구와 용품 등에서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옮겨와 계승 발전시켰으며, 그 외에 전통적인 윤리 도덕 규범과 관혼상제의 풍습, 명절, 민속놀이 등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데서 변하지 않은 우리 전통문화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족은 문화혁명의 시련을 잘 극복한 후부터 민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수한 교육기관들을 육성

하기 시작하였고, 작가와 예술가들의 단체가 속속 결성되어 예술과 창작활동을 활성화시켰으며 TV와 라디오 및 인쇄매체도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전통적으로 노래와 춤, 가무가 발달한 민족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한국의 문화와 한국 관광객 등의 영향으로 연변지역에는 개방화와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노래방'과 '가라오케'가 많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연변의 인구당 술 소비가 중국 1위의 '술문화'를 가져와 이것이 이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이혼율이 증가되는 등 조선족 가정의 부부갈등,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간 문화갈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의 방법은 연변 현지의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내외 문헌 연구를 함께 병행하였다. 조선족의 일반적인 가정생활 실태와 의생활 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현지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생활 환경, 의생활 실태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더욱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현장관찰 및 개별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조사는 중국 연변 조선족 연구의 기초적인 단계로서 중국 조선족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길림성(吉林省) 연변(延·)지역의 연길(延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가정생활 및 의생활에 대한 기초조사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정에 가장 밀착되어있는 주부와 신교육을 받고 있는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기간은 1999년 5월과 7월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정작업을 마친 후 1999년 8~9월에 걸쳐 연길 시내에 거주하는 대

학생과 주부 52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조사 설문지는 총 520부를 배부하고, 그 중 503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 분석을 위한 통계방법으로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전체 항목에 대한 빈도분석을 모두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는 연령과 학력 및 월평균 총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생활 환경과 의생활 실태 항목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hi-Square 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IV. 분석결과 및 고찰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 학력, 월수입, 직업, 결혼상태, 가족형태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수는 총 503명이며, 본 연구가 여대생과 주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성별은 모두 여자이다.

연령분포에 있어서 '10~19세'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표집 대상인 여대생의 경우 대부분이 만 나이로 이해하고 10대 후반으로 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수입은 가족구성원 전체의 수입을 합한 것을 말하며, 중간값으로 환산한 가계 월수입의 평균은 약 1,588위안 정도이다.

#### 2 일반생활 환경

연변 조선족들의 일반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생활용품 및 여가생활,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피복비 및 식비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하였다. 일반생활 환경에 대한 분석결과와 다음과 같다.

##### 1) 생활용품

연변 조선족의 생활용품 소유현황은 <그림 1>과 같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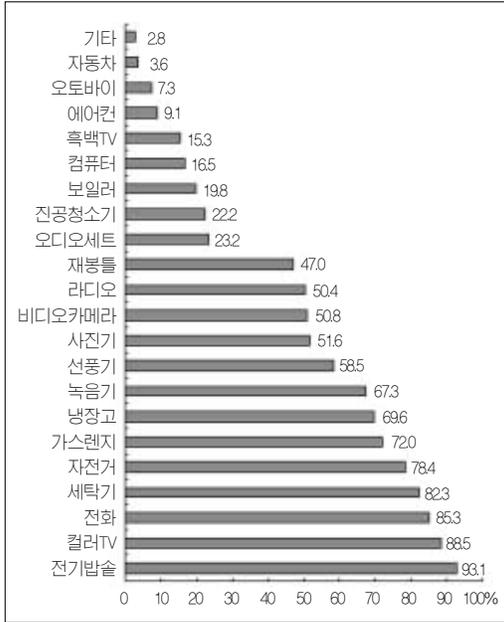
| 환경변인   | 통계치              | 인원(명) | 백분율(%) |
|--------|------------------|-------|--------|
| 연 령    | 10~19세           | 233   | 46.3   |
|        | 20~29세           | 61    | 12.1   |
|        | 30~39세           | 167   | 33.2   |
|        | 40~49세           | 42    | 8.3    |
|        | 합 계              | 503   | 100.0  |
| 학 령    | 중학교 졸업 및 이하      | 43    | 8.6    |
|        | 고등학교 졸업          | 131   | 26.2   |
|        | 중전 재학 및 졸업       | 55    | 11.0   |
|        | 대학교 재학 및 졸업      | 258   | 51.6   |
|        | 연구생 재학 및 졸업      | 13    | 2.6    |
| 합 계    | 500              | 100.0 |        |
| 월 수 입  | 500위안 미만         | 59    | 11.9   |
|        | 500~1,000위안 미만   | 159   | 32.2   |
|        | 1,000~2,000위안 미만 | 173   | 35.0   |
|        | 2,000~3,000위안 미만 | 30    | 6.1    |
|        | 3,000~4,000위안 미만 | 36    | 7.3    |
|        | 4,000~5,000위안 미만 | 19    | 3.8    |
|        | 5,000위안 이상       | 18    | 3.6    |
| 합 계    | 494              | 100.0 |        |
| 직 업    | 사무직              | 43    | 8.5    |
|        | 전문직              | 25    | 5.0    |
|        | 경영관리직            | 54    | 10.7   |
|        | 전문기술직            | 50    | 9.9    |
|        | 판매직              | 43    | 8.5    |
|        | 생산직              | 10    | 2.0    |
|        | 복무원              | 11    | 2.2    |
|        | 전문서비스직           | 3     | 0.6    |
|        | 학생               | 196   | 39.0   |
|        | 가정주부             | 30    | 6.0    |
|        | 농어업              | 3     | 0.6    |
|        | 잡일               | 16    | 3.2    |
|        | 무직               | 12    | 2.4    |
|        | 기타               | 7     | 1.4    |
| 합 계    | 503              | 100.0 |        |
| 결혼상태   | 미혼               | 225   | 45.5   |
|        | 기혼               | 214   | 43.2   |
|        | 이혼               | 36    | 7.3    |
|        | 사별               | 15    | 3.0    |
|        | 동거               | 5     | 1.0    |
| 합 계    | 495              | 100.0 |        |
| 가족형태   | 5인이상 대가족         | 86    | 17.1   |
|        | 4인이하 핵가족         | 417   | 82.9   |
|        | 합 계              | 503   | 100.0  |
| 가족 구성원 | 독신               | 13    | 2.6    |
|        | 부+자녀             | 16    | 3.2    |
|        | 모+자녀             | 29    | 5.8    |
|        | 부부+자녀            | 337   | 67.8   |
|        | 조모+부부+자녀         | 54    | 10.9   |
|        | 조부+부부+자녀         | 6     | 1.2    |
|        | 조부모+부부+자녀        | 17    | 3.4    |
|        | 부부               | 12    | 2.4    |
|        | 기타               | 13    | 2.6    |
|        | 합 계              | 497   | 100.0  |

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전기밥솥(93.1%)과 컬러 TV(88.5%), 전화(85.3%)를 소유하고 있었다. 퍼스널 컴퓨터의 보유량이 비교적 높은 것은 조사자의 절반정도가 여대생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에어컨의 보급은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더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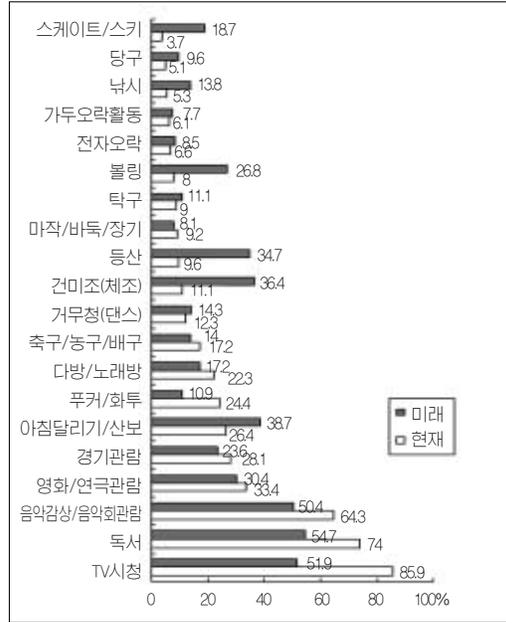
중국인의 가정 내 생활용품에 관한 소비실태를 보면, 초기 소비단계인 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손목시계, 자전거, 재봉틀, 라디오 등을 선호하였다. 개혁개방의 추진으로 중국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선호된 물건으로는 TV, 냉장고, 녹음기, 세탁기, 선풍기, 카메라 등이며, 최근 90년대 들어와 중국인의 소비성향을 반영하는 생활용품으로는 전화, 에어컨, 컴퓨터 등이 속한다. 현재 중국인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품목 1위는 새집과 자동차이다. 이처럼 1960년대 이래 약 30년간 중국대도시의 가정소비는 '구삼종신기(舊三種神器)'인 손목시계, 자전거, 재봉틀과 '신삼종신기(新三種神器)'인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시대를 거쳐 '신신삼종신기(新新三種神器)' 퍼스널 컴퓨터, 자동차, 주택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연변 조선족들의 소비실태도 중국 내 소비실태 현황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삼종신기'에 해당하는 컬러TV와 냉장고, 세탁기의 보급은 중국인 못지 않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신신삼종신기' 시대를 향하고 있다고 보겠다. 중국인들에게 자동차 구입은 곧 부와 재력의 상징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가장 먼저 구입하고 싶은 항목으로서 이를 꼽았다.

## 2) 여가생활

연변 조선족의 여가생활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현재 여가생활 1위는 85.9%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TV 시청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독서(74.0%), 음악감상이나 음악회관람(64.3%), 영화/연극관람(33.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2~3년 내 희망하는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데, 독서(54.7%), TV 시청(51.9%), 음악감상/음악회관람(50.4%)은 여전히 많고, 현재 여가생활로 즐기지는 못하지만 조



<그림 1> 생활용품 소유현황



<그림 2> 여가생활 비교

깅(38.7%), 등산(34.7%), 건강미체조(健美操)(36.4%), 볼링(26.8%), 경기관람(23.6%)에 대한 희망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아 연변 조선족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중국인들의 여가나 휴가에 대한 개념은 과거 '사치스럽고,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내포한 반 사회적인 것'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개인화(個人化)', '다양화(多樣化)', '서구화(西歐化)', '상업화(商業化)'를 지향하고 있다. 여가생활에 있어서도 스포츠로서 여가를 활용하는 수가 늘어나고 건강과 체력단련

을 목표로 과거에 있었던 대규모 군중 집단체조 형식을 넘어 개혁개방 이후부터는 새로운 형식의 건강, 오락, 취미를 반영한 스포츠로 여가를 활용하고 있다.

### 3) 만남의 장소

연변 조선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남의 장소로는 집이 42.7%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이 28.4%, 다방이 21.3%였으며, 호텔식당이나 유명음식점에서 만난다는 사람은 7.6%에 불과했다. 월평균 총수입과 연령에 따라서는 만남의 장소 선택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

<표 2> 월평균 총수입에 따른 만남의 장소

(단위 : %)

| 장소          | 월수입      |              |                |                |                |                |            |
|-------------|----------|--------------|----------------|----------------|----------------|----------------|------------|
|             | 500위안 미만 | 500-1,000 위안 | 1,000-2,000 위안 | 2,000-3,000 위안 | 3,000-4,000 위안 | 4,000-5,000 위안 | 5,000위안 이상 |
| 호텔 식당/유명음식점 | 1.85     | 1.35         | 9.03           | 3.85           | 21.21          | 16.67          | 38.89      |
| 일반음식점       | 25.93    | 29.05        | 30.97          | 38.46          | 18.18          | 16.67          | 27.78      |
| 다방          | 14.81    | 10.81        | 28.39          | 38.46          | 36.36          | 33.33          | 11.11      |
| 집           | 57.41    | 58.78        | 31.61          | 19.23          | 24.24          | 33.33          | 22.22      |
| 합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표 3> 연령에 따른 만냥의 장소

(단위 : %)

| 장소 \ 연령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
| 호텔 식당/유명음식점 | 1.34   | 15.09  | 12.59  | 15.00  |
| 일반음식점       | 33.04  | 22.64  | 27.97  | 12.50  |
| 다방          | 16.96  | 32.08  | 25.17  | 15.00  |
| 집           | 48.66  | 30.19  | 34.27  | 57.50  |
| 합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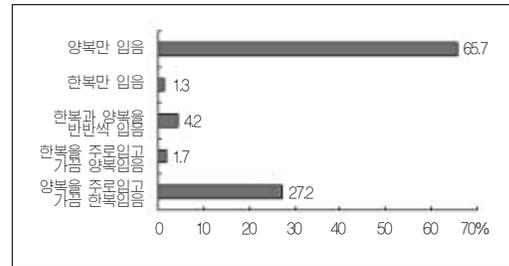
이는데 이를 살펴보면 <표 2>, <표 3>과 같다.

4) 피복비 및 식비

가구당 연간 피복비는 평균적으로 약 1,426.27위안 이고, 70.7%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간 피복비로 500~1,500위안 정도를 지출하였다. 연간 피복비는 가정의 월평균 총수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수입이 증가할수록 피복비도 현저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또한 가정의 한달 평균 식비는 400~500위안 정도라고 답한 사람이 17.0%로 가장 많았다.

양복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복을 입는 정도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한복착용이 비교적 높다.

한복을 입는 경우는 <그림 4>와 같다. 한복은 잔치 날에 주로 착용하며 주로 노인들이 많이 입는다. 착용 계기도 8월 15일 노인절과 같은 기념 경축일 행사나 회갑연, 생일잔치 등에 국한된다. 한복을 착용한 모습



<그림 3> 평상시 주로 착용하는 의복 형태

3. 의생활 실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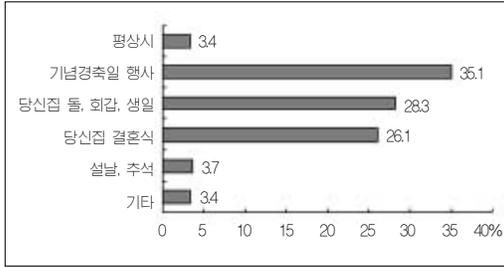
1) 의복착용

평상시 의복착용과 관련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한복은 여성들에게 있어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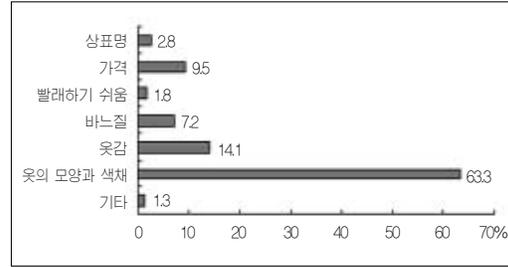
<표 4> 월평균 총수입에 따른 연간 피복비

(단위 : %)

| 연간 피복비 \ 월수입      | 500위안 미만 | 500-1,000 위안 미만 | 1,000-2,000 위안 미만 | 2,000-3,000 위안 미만 | 3,000-4,000 위안 미만 | 4,000-5,000 위안 미만 | 5,000위안 이상 |
|-------------------|----------|-----------------|-------------------|-------------------|-------------------|-------------------|------------|
| 500위안 미만          | 70.69    | 41.94           | 25.15             | 6.67              | 2.86              | 5.26              | 5.56       |
| 500-1,500 위안 미만   | 20.69    | 48.39           | 45.61             | 33.33             | 17.14             | 15.79             | 22.22      |
| 1,500-2,500위안 미만  | 8.62     | 7.10            | 19.30             | 33.33             | 45.71             | 47.37             | 16.67      |
| 2,500-3,500위안 미만  | 0.00     | 1.94            | 5.26              | 13.33             | 17.14             | 10.53             | 11.11      |
| 3,500-4,500위안 미만  | 0.00     | 0.00            | 3.51              | 10.00             | 11.43             | 15.79             | 16.67      |
| 4,500-10,000위안 미만 | 0.00     | 0.65            | 0.58              | 3.33              | 5.71              | 0.00              | 5.56       |
| 10,000위안 이상       | 0.00     | 0.00            | 0.58              | 0.00              | 0.00              | 5.26              | 22.22      |
| 합 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그림 4> 한복을 입는 경우



<그림 5> 의복 구입시 가장 중요시하는 고려사항

은 <사진 1>에서 볼 수 있다.

### 2) 의복구입

의복을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86.7%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성복(現成衣服)을 구입하였고, 의복을 구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또한 의복 구입 장소에 대한 모습은 <사진 4~6>과 같다.

의복을 구입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고려하는 사항은 옷의 모양과 색채(63.3%)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의

류와 관련한 도시시장이 중고급화, 패션화, 개성화를 강조하면서 중국인의 패션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과거 실용성, 경제성을 의복구입 개념으로 삼았던 것에서부터 미관, 즉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입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기성복과 고급품을 선호하고 브랜드 의식이 생기면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루어보아 현재는 상표명이 의복구입의 고려순위에서 다소 낮은 순위를 차지하지만 앞으로 꾸준한 경제성장에 따라 브랜드의 선호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5)

### 3) 의복 보유량

연변인의 의복 보유량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를 토대로 산출해본 전체 의복 보유량 추정치는 약 27.12벌인 것으로 대략 집계해 볼 수 있다. 필자가 1990년 조사<sup>16)</sup>한 한국 신세대의 의복 보유량은 티셔츠 92벌, 블라우스 50벌, 스웨터 56벌, 스커트 67벌, 바지 60벌, 원피스 33벌, 투피스 47벌, 재킷 46벌, 점퍼 39벌, 코트 20벌로 개인당 의복 보유량은 약 51벌이다. 또 1989년 발표한 조사<sup>17)</sup>에서 한국 전후세대의 개인당 전체 의복 보유량이 53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티셔츠 78벌, 블라우스 61벌, 스웨터 51벌, 스커트 71벌, 바지 48벌, 원피스 59벌, 투피스 61벌, 재킷 42벌, 점퍼 28벌, 코트 31벌 수준이다. 본 조사는 재킷과 점퍼를 제외한 대신 한복 보유량을 추가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인과 중국 연변 조선족의 의복 보유량에는 현저한 차이가 나며, 연변 조선족들의 의복 보유량이 한국인의 약 50% 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변지역의 의복

<표 5> 의복 구입

| 의복 구입 방법 |        |
|----------|--------|
| 구입 방법    | 백분율(%) |
| 상점에서 구입  | 86.7   |
| 복장점에서 맞춤 | 11.0   |
| 집에서 만듦   | 1.9    |
| 기 타      | 0.4    |
| 합 계      | 100.0  |
| 의복 구입 장소 |        |
| 구입 장소    | 백분율(%) |
| 전문점      | 10.7   |
| 고가 상점    | 13.2   |
| 중저가 상점   | 33.6   |
| 한국옷 상점   | 7.9    |
| 길거리/야시   | 1.2    |
| 백화점      | 30.2   |
| 기 타      | 3.2    |
| 합 계      | 100.0  |

<표 6> 품목별 의복 보유량

(단위 : %)

| 품목   | 보유량 | 없음   | 1벌   | 2~3벌 | 4~6벌 | 7~9벌   | 10벌 이상 | 합 계  | 평 균   |
|------|-----|------|------|------|------|--------|--------|------|-------|
| 코 트  |     | 94   | 333  | 421  | 100  | 28     | 24     | 1000 | 237벌  |
| 스웨터  |     | 18   | 56   | 470  | 319  | 90     | 48     | 1000 | 407벌  |
| 티셔츠  |     | 48   | 87   | 378  | 312  | 105    | 70     | 1000 | 420벌  |
| 바 지  |     | 04   | 20   | 251  | 450  | 191    | 84     | 1000 | 535벌  |
| 품목   | 보유량 | 없음   | 1벌   | 2~3벌 | 4~6벌 | 7~8벌   | 9벌 이상  | 합 계  | 평 균   |
| 투피스  |     | 309  | 242  | 305  | 91   | 33     | 20     | 1000 | 189벌  |
| 원피스  |     | 404  | 245  | 239  | 73   | 22     | 16     | 1000 | 152벌  |
| 품목   | 보유량 | 0~1벌 | 2~3벌 | 4~6벌 | 7~9벌 | 10~11벌 | 12벌 이상 | 합 계  | 평 균   |
| 블라우스 |     | 151  | 399  | 210  | 131  | 60     | 48     | 1000 | 368벌  |
| 품목   | 보유량 | 없음   | 1벌   | 2벌   | 3벌   | 4벌     | 5벌 이상  | 합 계  | 평 균   |
| 한 복  |     | 50.7 | 268  | 121  | 55   | 20     | 29     | 1000 | 0.90벌 |

<표 7> 2년 내 구입희망 의복 순위

(단위 : %)

| 품목          | 순위 | 1 위 | 2 위 | 3 위  | 4 위 | 5 위 |
|-------------|----|-----|-----|------|-----|-----|
| 고급털 코트(大衣)  |    | 324 | 13  | 09   | 14  | 18  |
| 코트          |    | 108 | 46  | 13   | 19  | 21  |
| 편안한 반코트     |    | 276 | 131 | 29   | 26  | 31  |
| 가죽 코트       |    | 71  | 86  | 42   | 26  | 13  |
| 투피스(套裝)     |    | 98  | 341 | 128  | 75  | 47  |
| 원피스(連衣裙)    |    | 12  | 63  | 97   | 65  | 26  |
| 블라우스(여성용적삼) |    | 08  | 72  | 11.7 | 79  | 78  |
| 스웨터(毛衣)     |    | 04  | 61  | 139  | 139 | 80  |
| 티셔츠(T적삼)    |    | 06  | 23  | 49   | 50  | 54  |
| 청바지(牛仔衣)    |    | 18  | 38  | 84   | 123 | 96  |
| 한복저고리/치마    |    | 24  | 29  | 100  | 103 | 93  |
| 한복두루마기      |    | 10  | 19  | 27   | 24  | 28  |
| 등산복(羽絨服)    |    | 10  | 17  | 35   | 70  | 80  |
| 운동복         |    | 14  | 32  | 66   | 94  | 153 |
| 스키복         |    | 06  | 04  | 1.1  | 07  | 18  |
| 볼링복         |    | 04  | 06  | 20   | 26  | 13  |
| 수영복         |    | 02  | 04  | 18   | 29  | 83  |
| 건강미옷        |    | 02  | 15  | 15   | 29  | 67  |

복수 응답으로 처리하였음 (총 응답자 508명)

에 대한 보유 수준이 아직은 넉넉한 편이 아니지만, 앞으로 의복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시사 해준다. 앞으로 2년 내 구입을 희망하는 의복의 순위 는 <표 7>과 같다.

#### 4) 한국산 의복에 대한 태도

한국산 의복을 구입한 경험에 대해서는 '구입한 적 이 있다'가 80.1%로 대다수의 연변 조선족들이 우리 나라 의복을 구입했고,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



<사진 1> 결혼식 하객의 한복차림(2000)



<사진 2> 연변과학기술대학 여대생(2000)



<사진 3> 연길시내의 거리패션(2000)

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의복에 대해서는 일본, 홍콩의 제품과 함께 고품질, 고가격의 고급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의 패션에도 관심이 많다.

구입한 품목으로는 속옷이 55.1%로 가장 많았고, 티셔츠를 구입한 경우도 43.8%였다. 그 밖에 스웨터(28.2%), 원피스(14.5%), 투피스(31.7%), 청바지(27.9%)의 구입도 20~30% 수준이었고, 한복을 구입한 경우는 18.5%였다. 한국산 의복의 구입장소는 역시 한국옷 상점이 34.3%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고가매장(27.4%)이나 백화점(24.3%), 중저가매장(22.1%)에서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선호의복의 색채

연변 조선족들의 의복에 있어 색채 선호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검정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비교적 다양한 색상을 선택한 품목은 원피스와 스커트이다. 스커트는 검정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35.4%로 가장 많았지만, 반면 아주연한색을 응답한 사람도 23.8%나 되는 등 가장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연한색을 선호하는 경향은 우리의 전통적인 색채에 대한 미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8)

일반적으로 연변 조선족들의 의복에 있어서 색채의 식은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는 중국산 의복 제품의 소재가 우리나라 60년대 정도의 수준으로서 이러한 섬유소재의 한계로 인해 색채가 고급화되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그러나 매스컴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접촉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맞추어 색채의식도 향상하리라는 전망이다

<표 8> 품목에 따른 즐겨입는 의복색 순위

(단위 : %)

| 품목<br>순위 | 코트(大衣) |      | 투피스(套裝) |      | 원피스(連衣裙) |      | 바 지 |      | 스커트 |      |
|----------|--------|------|---------|------|----------|------|-----|------|-----|------|
|          | 색상     | %    | 색상      | %    | 색상       | %    | 색상  | %    | 색상  | %    |
| 1위       | 검정색    | 70.8 | 검정색     | 28.0 | 연한색      | 27.0 | 검정색 | 70.7 | 검정색 | 35.4 |
| 2위       | 회색     | 12.3 | 자주색     | 20.0 | 파란색      | 23.7 | 파란색 | 9.2  | 연한색 | 23.8 |
| 3위       | 흰색     | 8.2  | 연한색     | 12.6 | 흰색       | 17.6 | 회색  | 6.1  | 흰색  | 11.7 |
| 4위       | 연한색    | 2.8  | 회색      | 11.3 | 검정색      | 10.2 | 흰색  | 5.0  | 회색  | 5.6  |
| 5위       | 빨간색    | 1.9  | 빨간색     | 7.1  | 푸른색      | 7.1  | 연한색 | 4.3  | 자주색 | 5.4  |

복수 응답으로 처리하였음 (총 응답자 503명)

6) 선호의복의 분위기

선호하는 의복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대적이고 활동적인 편한 옷이 23.3%로 가장 많았고, 그와 비슷한 수로 22.7%의 사람들이 세련되고 성숙한 분위기의 옷을 선호했다. 반면 유행성이 강한 옷(3.8%)이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2.4%)에 대해서는 소수만이 응답했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6.7%에 불과했다. 선호하는 의복 분위기는 연령별, 학력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본 조사에서는 유행성이 강한 옷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적긴 하지만 조선족들은 유행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에서 한족(漢族)과 조선족을 복식으로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할만큼 한족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한족에 비해 조선족은 옷매무새가 단정하고 깨끗하며 색깔이 깔끔하거나 비교적 화려하게 옷을 입고, 구두를 신으며 한족에 비해 옷과 외모에 훨씬 더 민감하다고 한다. (사진 2, 3)

7) 의복과 체형

연구대상자의 체격조건을 보면, 신장이 최소 147.00cm에서 최고 170.00cm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 157.97cm이다. 몸무게는 최소 37.00kg에서 최고 100.00kg대까지의 광범위한 분포를 보였고, 평균 55.92kg이다.

특히 조선족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보다 매우 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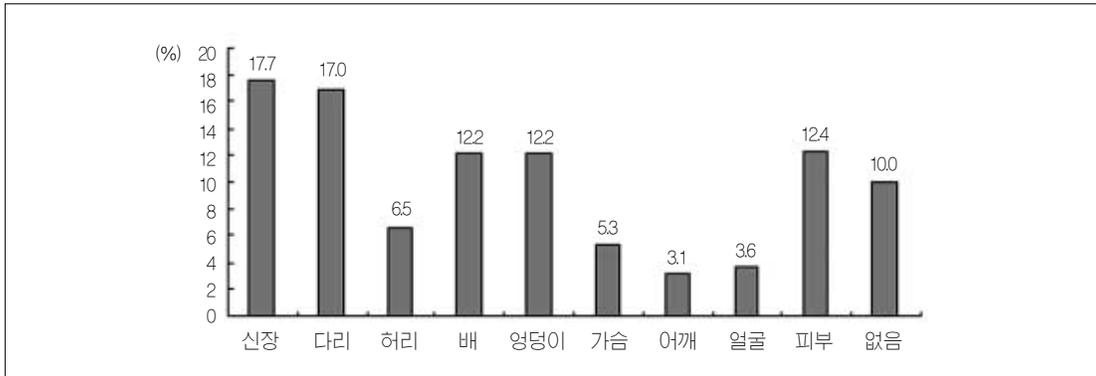
왜소한 체형부터 크고 날씬한 체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형을 가졌다. 1999년 행해진 한국과 중국 조선족 여대생의 체형 비교연구<sup>16)</sup>에서 보면, 조선족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과 비교하여 신장이 평균 4.1cm, 몸무게 2.1kg이 더 작은 반면 비만도는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조선족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에 비해 키가 작고 뚱뚱하며 체형별로 보았을때, 앞종심 길이가 더 길고, 밑가슴 두께가 더 두꺼우며, 솟은 어깨를 지녔다. 또한 몸통의 너비와 두께가 키에 비해 더 크고, 몸통은 너비에 비해 두께가 두꺼운 둥근 단면 형상을 나타냈으며, 팔길이가 짧은 신체적 특성을 보였다. 조선족 여대생과 한국 여대생의 가장 큰 체형의 차이는 신장이다. 따라서 같은 한민족이지만 체형 면에서는 현재 한국 여대생은 몸통이 납작한데 비해 연변 조선족 여대생은 키가 작고 뚱뚱하며 몸통이 너비에 비해 두께가 두꺼운 둥근단면의 특성을 가졌다.

의복으로 보완하고 싶은 체형의 결점으로는 신장 17.7%, 다리 17.0%로 작은 키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일고 있는 장신(長身)선호 열풍을 연변 조선족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그림 6)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10대의 경우 신장(23.70%)과 다리(21.80%), 20대는 피부에 대한 결점 커버가 25.49%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역시 출산 후 가장 많은 체형의 변화를 보이는 배 부분을 커버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23.44%로 가장 많았다. 흥미있는 점은 40대의 경우 모

<표 9> 연령별, 학력별 선호하는 의복 분위기

(단위 : %)

| 선호의복특성          | 연령 및 학력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중졸이하   | 고졸     | 중전재·졸  | 대재·졸   | 연구생재·졸 |
|-----------------|---------|--------|--------|--------|--------|--------|--------|--------|--------|--------|
|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         | 5.61   | 7.84   | 8.90   | 2.63   | 20.59  | 10.43  | 4.17   | 3.80   | 0.00   |
| 순수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옷 |         | 25.70  | 5.88   | 9.59   | 5.26   | 2.94   | 13.91  | 8.33   | 21.94  | 8.33   |
| 현대적이고 활동적인 투피스  |         | 36.05  | 17.65  | 12.33  | 5.26   | 11.76  | 20.00  | 18.75  | 26.16  | 50.00  |
| 유행을 타지 않는 수수한 옷 |         | 10.28  | 15.69  | 7.53   | 18.42  | 20.59  | 13.91  | 6.25   | 8.44   | 8.33   |
| 평범한 분위기의 정장     |         | 6.54   | 25.49  | 2.26   | 7.89   | 11.76  | 14.78  | 20.83  | 12.66  | 16.67  |
| 화려하고 고급 옷       |         | 0.93   | 1.96   | 3.42   | 7.89   | 8.82   | 2.61   | 4.17   | 0.84   | 8.33   |
| 유행성이 강한 옷       |         | 0.93   | 9.80   | 5.48   | 5.26   | 5.88   | 2.61   | 10.42  | 2.95   | 0.00   |
| 세련되고 성숙한 분위기의 옷 |         | 14.95  | 15.69  | 30.14  | 47.37  | 17.65  | 21.74  | 27.08  | 23.21  | 8.33   |
| 합 계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그림 6〉 의복으로 보완하고 싶은 체형의 결점

〈표 10〉 연령별 의복으로 보완하고 싶은 체형의 결점

(단위 : %)

| 체형 \ 연령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
| 신장(키)   | 23.70  | 9.80   | 11.72  | 14.81  |
| 다리      | 21.80  | 17.65  | 11.72  | 0.00   |
| 허리      | 4.74   | 3.92   | 7.81   | 18.52  |
| 배       | 6.16   | 5.88   | 23.44  | 18.52  |
| 엉덩이     | 15.17  | 11.76  | 9.38   | 3.70   |
| 가슴      | 4.74   | 5.88   | 6.25   | 3.70   |
| 어깨      | 3.79   | 0.00   | 3.13   | 3.70   |
| 얼굴      | 2.84   | 7.84   | 3.91   | 0.00   |
| 피부      | 10.90  | 25.49  | 8.59   | 18.52  |
| 결점이 없다  | 6.16   | 11.76  | 14.06  | 18.52  |
| 합 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든 체형의 결점이 있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8) 유행 수용도

유행 수용도에 따른 분석결과는 〈그림 7〉과 같다. '나는 의생활에서 유행을 빨리 받아들인다' 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0.5%, '식생활에서도 새로운 음식을 빨리 받아들인다' 고 응답한 사람이 57.2%로 조선족이 생활 전반에 걸쳐 유행에 민감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먹는 것보다 입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은 37.2%로 아직 의생활보다 식생활에 더 중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행의 수용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현 중국의 소비구조변화에서 보이는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엔겔계수의 저하, 식비관련 비용 지출의 감소와 함께 주택관련 지출과 의복비의 지출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다.<sup>19)</sup> 이러한 추세가 연변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패션과 유행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연령에 따른 유행 수용도

(단위 : %)

| 유행수용도 \ 연령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합 계    |
|-------------------------|--------|--------|--------|--------|--------|
| 나는 의생활에서 유행을 빨리 받아들인다.  | 38.97  | 14.36  | 40.00  | 6.67   | 100.00 |
| 나는 먹는것보다 입는것에 관심이 많다.   | 52.20  | 12.09  | 29.12  | 6.59   | 100.00 |
| 나는 운동보다 TV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 45.39  | 11.51  | 36.18  | 6.91   | 100.00 |
| 나는 비싸도 입고싶은 옷이면 구입한다.   | 37.97  | 18.35  | 36.08  | 7.59   | 100.00 |
| 나는 새로운 음식을 빨리 받아들인다.    | 47.84  | 13.67  | 33.09  | 5.40   | 100.00 |
| 나는 비싸도 먹고 싶은 음식은 사먹는다.  | 44.70  | 12.90  | 37.33  | 5.07   | 1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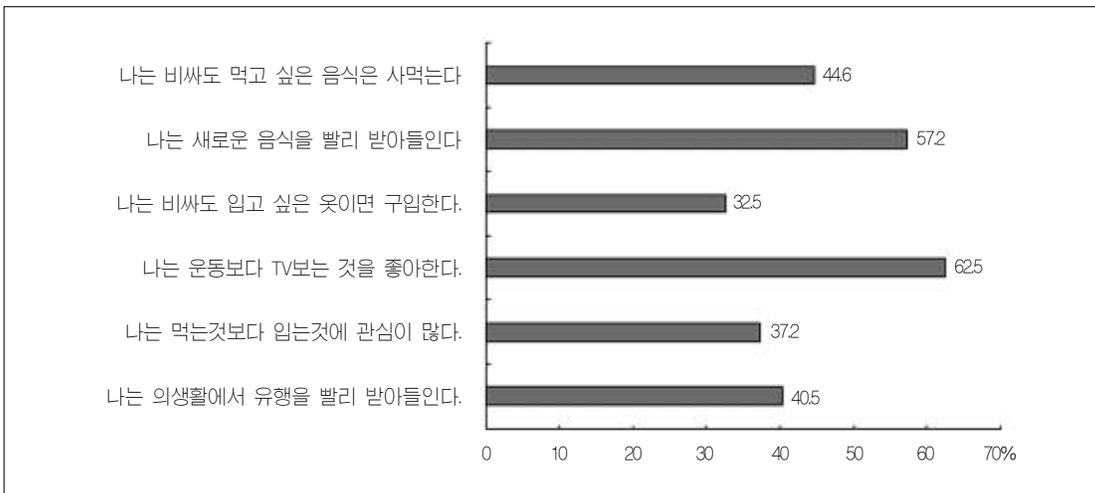
<사진 4> 연길시 백화상점의 내부(2000)



<사진 5> 일반시장의 의류 판매대(2000)



<사진 6> 연길시 전매점(전문점) 전경(2000)



<그림 7> 유행 수용도

## V. 결론 및 제언

이상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조사가 이루어진 연길은 연변 내 대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연변의 타지역에 비해 생활전반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가구당 월평균 총수입은 평균 약 1,588위안으로 연변 전체의 평균(약 1,142위안)보다 다소 높았으며, 학력 분포에 있어서도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주었다.

직업에 있어서는 주부라 할지라도 전업주부는 6.0%만 나타났고, 대부분이 경제활동(86.2%)을 하고 있었으며, 업종별로 다양한 직업분포를 보여주었다.

가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가정이 4명 이하의 핵가족(82.9%)이고, 부부와 자녀(67.8%)로만 이루어진 가족 구성이 가장 많았으며, 이로서 연길의 가족형태가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핵가족화 되어 가는 현상을 알 수 있다.

2 생활용품의 소비실태에 있어 '신삼종신기(新三種

神器'인 컬러TV(88.5%), 냉장고(69.6%), 세탁기(82.3%) 시대를 거쳐 '신신삼종신기(新新三種神器)'인 퍼스널 컴퓨터(16.5%), 자동차(3.6%), 주택의 시대를 향하고 있다. 신삼종신기에 대한 보급률은 높은 편이며, 신신삼종신기에 대한 보급이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현재 여가생활에 있어서 TV시청(85.9%)과 독서(74.0%)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아직 다양한 여가생활을 향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3년 내 희망 여가생활에서는 조깅(38.7%), 등산(34.7%), 체조(36.4%), 볼링(26.8%), 경기 관람(23.6%) 등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여가생활에 대한 개념이 '다양화', '서구화', '상업화' 되어가며 건강, 오락, 취미를 반영한 스포츠의 여가활용을 예측할 수 있다.

4. 만남에 이용하는 장소는 주로 집(42.7%)이다. 만남의 장소는 고소득, 고학력층 일수록 호텔 식당이나 유명음식점을 이용하였으며, 저학력, 저소득층에서는 집에서 주로 만남을 가졌다.

5. 연간 피복비는 평균 약 1,426위안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착용의복으로 대부분이 양복(65.7%)을 입으며, 한복을 입는 경우는 기념 경축일 행사(35.1%)나 돌, 회갑, 생일(28.3%) 및 결혼식(26.1%) 같은 잔치날에만 착용하여 한복은 의례복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6. 의복구입은 대부분 기성복(86.7%)을 구입하였으며, 의복구입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옷의 모양과 색채(63.3%)로 감각적(디자인)인 면을 중요시했다.

7. 의복 전체 보유량 추정치는 약 27.12벌이다. 품목별로 코트 2.37벌, 스웨터 4.07벌, 티셔츠 4.20벌, 바지 5.35벌, 스커트 3.14벌, 한복 0.90벌, 투피스 1.89벌, 원피스 1.52벌, 블라우스 3.68벌 수준이며 이는 한국인 의복 보유량의 약 50% 정도의 수준으로 따라서 앞으로 의복시장이 발전 잠재시장임을 시사해준다.

8. 연길 조선족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산 의복에 대해서 고품질, 고가격의 고급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다수가 한국산 의복 구입경험 있으며(80.1%), 역시 한국옷상점(34.3%)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였다.

9. 의복색에 있어 전반적으로 검정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원피스나 스커트 등 단품류로 갈수록 연한색을 선호하는데, 이는 우리의 전통적인 색채에 대한 미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변 조선족들의 색채의식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며 이는 의복 보유량이 적고, 현지의 의복 소재가 우리나라의 1960년대 정도의 수준으로 섬유소재의 한계로 인해 색채가 아직 고급화되지는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10. 선호하는 의복 분위기는 현대적이고 활동적인 편한 옷(23.3%)과 세련되고 성숙한 분위기의 옷(22.7%)을 선호하나 실제 착용한 모습은 아직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 연변지역의 패션산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소재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조선족들은 한족에 비해 유행에 민감하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볼 때 연변지역의 패션산업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11. 연길 조선족의 체격은 신장이 평균 157.97cm, 몸무게가 평균 55.92kg 이다. 체형에 있어서 연변 조선족은 한국인에 비해 더 다양한 체형을 가지며, 한국인은 몸통이 납작하고 키가 큰 반면 연변 조선족은 키가 작고 뚱뚱하며 몸통이 둥근 단면 체형을 가졌다. 의복으로 보완하고픈 체형의 결점은 신장(17.7%)과 다리(17.0%)가 가장 높았고, 40대 주부들의 경우 모든 체형의 결점이 있어 보완하고픈 체형의 결점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12. 연길 조선족은 의생활에 있어서도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고(40.5%), 식생활에 있어서도 새로운 음식을 빨리 받아들이는(57.2%) 것으로 나타나 유행의 수용이 빠른 민족임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아직은 중국인의 관념과 같아 衣·食·住가 아닌 食·衣·住로 입는 것보다 먹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패션과 유행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본 조사가 이루어진 연길(延吉)시는 연변의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나타내었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점점 증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개방화와 더불어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커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와 유행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가속화되어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 다양화, 서구화,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수준향상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만 아직은 의생활을 비롯한 가정생활 전반이 낮은 수준이므로 앞으로 패션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가히 크다고 전망할 수 있겠다. 또한 중국의 개방화와 더불어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실업자,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가정생활문제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분단 반세기가 넘은 현 시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일명 햇볕정책으로 일컬어지는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한차원 높이고, 북한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사회, 문화적 교류의 활성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본 연구는 중국 연변지역의 여건상 연변지역 내 연결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의생활을 중심으로 한 가정생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고 때문에 대상을 주부와 여대생으로 선정하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본 연구는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하여 북한과 가정생활문화가 유사한 중국 연변 조선족 의생활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로서 그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조선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2) 고도임·윤복자·박남희·최형선·박경남, 중국 연변의 조선족 전통농가의 주생활,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9.
- 3) 류은순·류경,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주부들의 식생활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8, 1995.
- 4) 임순·손희순·김호숙·손희정·장희경, 한국

- 과 중국 조선족 여대생의 체형 비교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23-8, 1999.
- 5) <http://www.yanji.net/info/index.htm> (연지넷)
- 6) 車哲九主編, 吉林少數民族經濟, 民族出版社, 1995.
- 7) <http://www.yanbian.jl.cninfo.net/ybgk/index.html> (연변창구)
- 8) 중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최근의 소비성향, 한중민간경제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3, 1998.
- 9) 한상복·권태환, 앞글.
- 10) 고도임 외, 앞글, p. 24.
- 11) 주덕해(1911~1972) : 중국 조선족의 저명한 정치활동가이다. 원명은 오기섭이고 1911년 3월 5일 러시아 우수리스크 도베야촌에서 출생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건립 후 줄곧 자치주 주장 겸 중공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제1서기를 담임하였다. 문화대혁명시기, 주덕해는 정치적 박해를 받았으며 1972년 7월 3일 무한(武漢)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 12) 박창욱, 연변대 민족연구소 편, 중국 조선족 역사와 민족자치구역 실시, 연변인민출판사, 1989.
- 13) 고도임 외, 앞글, p. 24.
- 14) 집필소조,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 - 중국의 우리민족, 도서출판 한울, 1988, pp. 199-242.
- 15) 한중민간경제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앞글.
- 16) 曹圭和, 韓國新世代のファッション意識とその類型, アパレル研究 18號, 纖維工業構造改善事業協會, 1990.
- 17) 조규화, 한국여성의 소비실태, 한국패션협회, 1993.
- 18) 임순 외, 앞글.
- 19) 한중민간경제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앞글.